

[1] 만일 누가 어떤 노동 중에, 주방에서나, 창고에서나, 봉사 중에나, 빵 만드는 곳에서나, 정원에서나, 어떤 기술에 종사하는 중에 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무엇을 그르쳤거나, [2] 무엇을 파손했거나, 잃었거나 혹은 어디서든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, [3] 즉시 아빠스나 공동체 앞에 와서 스스로 보속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[4]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었거든 더욱 큰 벌에 처할 것이다.

[5] 만일 영혼의 은밀한 죄이거든 아빠스나 영신적 장로들에게만 밝힐 것이다. [6] 그들은 자기나 남의 상처들을 고칠 줄 알고, 또 (그 비밀을) 폭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줄 안다.